

# 傷寒雜病論 桂林古本 處方에 대한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比較研究

서영배, 강한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 ABSTRACT

### The comparative study on GuiLinGuBen 『ShangHanZaBingLun』's prescriptoins with 『ShangHanZaBingLun』 and 『JinKuiYaoLue』's

Young-Bae Seo, Han-Eun Kang  
Dept.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is thesis is the study on GuiLinGuBen 『ShangHanZaBingLun』's prescriptions which are totally 324, and unique 91 which are not written in current 『ShangHanZaBingLun』 and 『JinKuiYaoLue』, only in GuiLinGuBen 『ShangHanZaBingLun』.

For modern clinacal effectiveness of GuiLinGuBen 『ShangHanZaBingLun』, this thesis clarifies the prescriptions' distinction between GuiLinGuBen, 『ShangHanZaBingLun』 and 『JinKuiYaoLue』. First it classifies prescriptions into 4 groups, which are only in GuiLinGuBen, in 『ShangHanZaBingLun』, in 『JinKuiYaoLue』, and in both 『ShangHanZaBingLun』 and 『JinKuiYaoLue』. Second it tabulates and describes in detail GuiLinGuBen's prescriptions about title, prescription composition, prescription volumetrin, decotion, and dosage. Third it catches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GuiLinGuBen's

- 
- 교신저자 : 강한은
  -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 Tel : 042-280-2640 Fax : 042-274-2600 E-mail : khaneun@naver.com
  - 접수 : 2012/ 10/ 04 채택 : 2012/ 11/ 30

prescriptions by a comparative study which clarifies the differences of prescriptions between GuiLinGuBen, 『ShangHanZaBingLun』 and 『JinKuiYaoLue』. Current 『ShangHanZaBingLun』 and 『JinKuiYaoLue』's remedy focus on Shanghan and Jabbyong, so it has no choice but to have large remedy vaccum. The prescriptions only in GuiLinGuBen have same system with 『ShangHanZaBingLun』 and 『JinKuiYaoLue』's prescriptions, and contain unique Fever remover(清熱劑) and Counterbalancer(補劑), so they could give more clinacal practice over 『ShangHanZaBingLun』 and 『JinKuiYaoLue』.

**Key word** : GuiLinGuBen, prescription, ShangHanZabingLun, JinKuiYaoLue

## 1. 緒 論

傷寒論은 後漢末 張仲景이 저작하였으나 곧이어 전란에 소실되었다. 西晉의 王叔和가 발견한 傷寒論 初本 역시 필사본으로 이미 일부가 손실된 破本이었다. 『傷寒雜病論』序文에 의하면 본래는 16卷이라 기술되었으나 王叔和의 傷寒論 初本 발견이래 10卷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후 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여러 학자들이 끊임없이 발견, 정리, 간행하여 傷寒論의 판본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다. 林億 등이 正本으로 인정한 齊梁古本 辨傷寒 역시 여러 명이 抄寫한 傳抄本으로, 현재 유전하는 판본의 종류만도 10개가 넘는다. 傷寒論板本大全에는 敦煌本 康治本 康平本 金匱玉函經 高斷沖本 唐本 宋本 註解傷寒論 모두 8개가 수록되어 있고<sup>1)</sup>, 최근 19세기이후에 발견된 古本은 長沙古本(湖古本), 四川本(涪古本), 白雲閣本(桂林古本), 康平本 등 4개이다.

한편, 北宋 仁宗 때에 옛 의서의 잔본 중에서 『金匱玉函要略方』이 발견되었다. 上卷에는 傷寒病, 中卷에는 雜病, 下卷에는 方劑 및 婦人科 理論 및 處方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를 林億이 『傷寒論』과

동일 내용인 上卷을 제외하고 中卷과 下卷을 정리하여 『金匱要略方論』이라 하였다<sup>2)</sup>. 따라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같은 책에서 발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唐代 王燾의 『外臺秘要』에서는 『金匱要略』의 여러 곳을 인용하여, '이는 仲景의 『傷寒論』方に 근거한다'라고 추론하였다. 이로 보건데 『傷寒論』저작 당시 『金匱要略』은 『傷寒論』과 하나의 책이었으며 그중 『傷寒雜病論』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3)</sup>.

19세기에 이르러 최후의 板本인 『傷寒雜病論 桂林古本』(이하 『桂林古本』으로 칭한다)이 발견되었다. 『桂林古本』은 『傷寒雜病論』에 이른 바와 같이 16卷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傷寒論』과 『金匱要略』 대부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다. 『桂林古本』의 구성은 총 964條으로, 卷一에서 卷五까지는 총론적인 성격으로 平脈法, 六氣, 傷寒例, 溫病, 傷暑, 熱病, 濕病, 傷燥, 寒病 등 치료원칙이 제시되어 있고, 卷六에서 卷十一까지는 『傷寒論』에 대한 내용이, 卷十二에서 卷十六까지는 雜病論, 즉 『金匱要略』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sup>4)</sup>.

『桂林古本』에 「내가 우리 스승인 張紹祖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자면 '우리 집의 『傷

寒論』은 전부 13가지 원고가 대대로 전해진다. 매번 하나의 원고가 완성되면 筆寫本이 대체로 성읍에 두루 퍼진다. 이에 가지고 있는 것은 12번째 원고이고, 나머지는 族人이 비밀리에 가지고 있거나 재해를 입었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 王叔和가 전수한 것은 7번째 원고이다.’라고 하였다<sup>5)</sup>.

張紹祖는 스스로 仲景의 46세손이라고 말하였다. 張紹祖는 조상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필사본 『傷寒雜病論』 16卷을 左盛德에게 전해 주었고, 左盛德은 또 羅哲初에게, 羅哲初는 이를 黃竹齊에게 보여주었다. 1935년, 黃竹齊는 『傷寒論十二稿』를 전부 필사해 사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 中日전쟁이 일어나 이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었다. 1956년 桂林의 中醫師 羅繼壽는 그의 부친 羅哲初의 필사본 원본을 내놓았고, 1960년 廣西人民出版社가 이를 정식으로 출판하면서 『桂林古本傷寒雜病論』으로 명명되었다. 현재 간행된 『桂林古本』에는 또 다른 판본이 있는데, 이는 1939년 黃竹齊가 校刊한 白雲閣本으로, 1980년 그의 제자인 米伯讓이 정오표를 보충하여 陝西中醫藥研究院에서 200부 再版하였다<sup>6)</sup>.

19세기에 발견된 새로운 傷寒論板本 중 하나인 『桂林古本』의 진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명확한 서지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僞書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古醫書가 필사본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각 板本마다의 실용적인 내용으로서 그 판본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桂林古本』은 『傷寒論』에 언급한 16卷으로 구성되어 있고,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傷寒論』, 『金匱要略』에서 구성 및 용량이 누락된 처방이 수록되어 있고, 또한 조문에 있어서 後代의 增入에 의한 오류라고 지적되었던 조문들이 정리되어 있고, 仲景의 遺方이 아니라 지적이 있어 왔던 『金匱要略』의 雜病方 이하 3편이 누락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오히려 傷寒

論의 眞本으로 생각될 정도로 매우 합리적인 면이 다분하여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연구에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桂林古本』을 본 연구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張洪斌은 “『金匱要略』과 『傷寒論』통행본에 수록된 397조에 대한 비교 대조를 통하여 문자 혹은 방치 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119조에 달하고, 그중 古本의 기록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것이 85조로 차이가 나는 조문의 71.4%를 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桂林古本』을 『傷寒論』과 『金匱要略』 두 서적을 연구 정리하는 거울과 참고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중국학계에서는 『桂林古本』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 정<sup>8)</sup>이 『桂林古本』의 조문을 여러 板本과 비교한 단 한편의 논문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桂林古本』 처방의 임상적 활용을 위하여, 『桂林古本』의 처방과 『傷寒論』, 『金匱要略』 처방의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桂林古本』의 처방을 『傷寒論』수재, 『金匱要略』수재, 『傷寒論』과 『金匱要略』 모두 수재, 『桂林古本』 단독수재의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처방명, 처방구성, 처방용량, 탕전법 및 복용법에 있어 『傷寒論』, 『金匱要略』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桂林古本』 처방의 상대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 II. 研究方法

### 1. 연구에 사용된 판본

본 논문은 2004년 한국 의성당에서 정식 출간된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을 底本으로 하고, 1986년 中國 整合醫學研究小組에서 나온 PDF판본의 전자책인 『傷寒雜病論』을 참조로 하였다.

『桂林古本』과 비교연구를 위한 傷寒論板本은 康平本과 趙開美本(宋本)을, 金匱要略 板本은 俞子

木本 『金匱要略』(金匱要略方論)을 중심으로 하였다.

康平本『傷寒論』은 唐代 日本으로 전해진 판본으로, 林億이 교정한 宋本傷寒論(治平2년, 즉 1065년)의 시기보다 6년이나 앞섰고, 또한 玄武湯을 眞武湯으로 고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北宋 이전의 原始 傳本으로 상당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sup>9)</sup>. 宋本 傷寒論은 朝廷에서 林億 등에게 校定을 명한 것으로 傷寒論의 定本이다<sup>10)</sup>. 이에 康平本과 宋本 두 권을 본 연구의 비교판본으로 삼게 되었다.

## 2. 출전비교

본 論文의 범위는 『桂林古本』에 수록된 처방들의 특징을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전을 비교해 보는 이유는 기존에 正本으로 인정한 『傷寒論』과 『金匱要略』 판본들과 『桂林古本』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얼마나 있으며 또 주목할 만한 『桂林古本』만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 3. 『桂林古本』 단독처방과 기존처방비교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수록된 기존 처방과 처방명 및 구성 등 완전히 다른 내용의 처방으로, 기존 醫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桂林古本』만의 독특한 처방을 『桂林古本』 단독처방으로 하였다. 『桂林古本』 그리고 기존 『傷寒論』 또는 『金匱要略』에 함께 수록된 처방들의 본초구성과 용량, 조제법 복용법 등을 표로 정리하였다. 먼저 기존 의서에는 처방명만 수록되고 나머지 내용은 失傳됐으나 『桂林古本』에만 처방구성과 용량이 표기된 경우, 동일한 처방이나 처방구성이 다른 경우, 동일한 처방이나 용량이 다른 경우, 또는 조제법 탕전법 복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었다.

## 4. 처방번호

『桂林古本』 323首의 처방을 찾아보기 쉽도록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후 1번부터 323번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 Ⅲ. 本 論

### 1. 처방출전 비교

『桂林古本』 단독수재는 92首 28.5%, 『桂林古本』과 『傷寒論』에 수재된 처방은 70首 21.7%, 『桂林古本』과 『金匱要略』에 수재된 처방은 121首 37.2%,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함께 수재된 처방은 40首 13.2%로, 총 처방의 수는 323 首가 된다.

#### 1) 『桂林古本』 단독처방

『桂林古本』 단독처방 또한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 처방에서 처방을 구성하는 본초의 이름을 나열함으로 처방명을 짓고, 둘째 주처방에서 본초가 빠질 때 去 본초명, 본초를 더할 때 加 본초명을 붙이고, 셋째 많은 수가 아닌 적은 수의 본초로 처방이 구성되고, 넷째 65여개의 자주 쓰이는 본초를 중심으로 처방이 구성되며<sup>11)(1)</sup> 후세의 약물들이 보이지 않는 등의 특징이 『桂林古本』의 처방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桂林古本』은 黃連 黃芩 石膏 등 清熱劑 처방이 모두 46首로 14.4%, 百合 地黃 등 補劑 처방이 52首 16%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汗法 66首, 補法(補劑) 52首, 和法 46首, 清法(清熱劑) 45首, 溫法 31首, 下法(攻下劑) 37首, 消法(利水劑) 31首, 吐法 2首, 그리고 외용제 및 기타 처방군 15首이다<sup>12)</sup>.

기존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傷寒과 婦人病, 雜病 치료에 치우쳐진 데 비하여 『桂林古本』 단독 처방들은 石膏劑과 芎藭劑 등의 清法 처방과, 芩歸劑 地黃劑 桔梗劑 甘草劑 등 補法の 처방

(1) 10회 이상 사용본초 40개, 4회이상 사용본초 65개, 1회 이상 총146개

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淸法과 補法의 처방들은 溫病 및 虛勞病 등의 임상 치료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桂林古本』에 수록된 단독처방은 92수로 [Table 1]과 같다.

## 2)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수재된 처방

『桂林古本』과 『傷寒論』에만 수재된 처방은 모두 70首이며, 『傷寒論』과 『金匱要略』~모두에 수록된 처방은 40首, 총 110首의 『傷寒論』~처방이 수재되어 있다. 『傷寒論』에는 猪膽汁과 禹餘糧丸을 포함하여 총 114首가 수재되어 있다.

『傷寒論』에 수록되어 있으나 『桂林古本』에 수재되지 않은 처방은 去桂加白朮湯, 桂枝加芍藥生薑人蔘新加湯, 大黃黃連瀉心湯, 當歸四逆加吳茱萸

生薑湯 총 4首이다. 『桂林古本』에 수록된 桂枝去芍藥生薑人蔘新加湯, 黃連黃芩瀉心湯,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附子湯 3처방은 『傷寒論』~처방명과 그 구성이 유사하긴 하나 처방운용이 다르므로 『桂林古本』~단독처방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으로 처방명과 구성 및 용량이 모두 동일한 것, 처방명이 동일하고 구성 및 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처방명이 약간씩 다르나 처방구성 및 용량이 동일한 경우, 처방명과 구성 및 용량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동일처방으로 보아도 무방한 경우, 또는 처방명 구성 용량 모두 동일하나 복용법이나 탕전법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을 『桂林古本』과 『傷寒論』에 수재된 처방으로 고려하였다.

Table 1. 『桂林古本』~단독수재 처방 92수<sup>(2)</sup>

NO.	처 방	구 성	조제/탕전/복용법
20	桂枝加附子當歸細辛人參乾薑湯	桂枝三兩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當歸四兩 細辛一兩 附子一枚(炮) 人參二兩 乾薑一兩半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右十味以水一斗二升煮取四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夜一服.
29	桂枝去桂加黃芩牡丹湯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黃芩三兩 牡丹皮三兩	右六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31	桂枝去芍藥加茯苓白朮湯	桂枝三兩 甘草二兩(炙) 茯苓三兩 白朮三兩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右六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33	桂枝去芍藥加人參生薑湯	桂枝三兩(去皮)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擘) 人參三兩 生薑四兩(切)	右五味以水一斗二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35	桂枝當歸牡丹皮桃仁枳實湯	桂枝三兩(去皮) 當歸二兩 牡丹皮三兩 桃仁二十枚(去皮尖) 枳實二兩	右五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 『桂林古本』~四逆散(甘草二兩 附子大者一枚 乾薑一兩半 人參二兩)의 경우『傷寒論』四逆散(甘草 枳實 柴胡 芍藥 各等分)과 처방 구성이 전혀 다르고, 『桂林古本』~四逆湯과도 용량 및 탕전법 차이가 있으므로 『桂林古本』~단독수재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 『桂林古本』에는 瓜蒌가 모두 栝蘂로 표기되어 있다. 古代醫書인 『輔行訣臟腑用藥法要』와 『神農本草經』에도 栝로 표기가 되어 있다. 『雷公炮炙論』에는 栝蘂로 표기되어 있다.
- 『圖景本草』에서 이르길, “通草는 요즘 사람들이 木通이라고 부른다”, “古方に 사용한 通草는 모두 현재의 木通이다”, 『本草從新』에서도 역시 “木通의 옛이름은 通草이다”라고 한 것을 생각해서 말하건데, 木通이란 명칭은 宋代에서 시작된듯하다. 이 책(桂林古本)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宋代 이후의 저작이다.
- 香蒲를 조사해보면 바로 蒲黃의 蒲根에서 생산될 수 있는데, 『神農本草經』이 그 효능을 기록하였지만 역대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正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서는 陶隱居를 인용하여 “方藥으로서 다시는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本書(桂林古本)이 梁代이전에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36	桂枝當歸湯	桂枝二兩 當歸三兩 半夏一升 芍藥三兩 黃柏二兩 甘草二兩(炙)	右六味以水七升煮取四升去滓分溫三服.
38	桂枝茯苓白朮 細辛湯	桂枝三兩 茯苓四兩 白朮三兩 細辛二兩	右五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39	桂枝茯苓枳實 芍藥甘草湯	桂枝三兩(去皮) 茯苓二兩 枳實二兩 芍藥三兩 甘草一兩(炙)	右五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55	括蕪茯苓湯 <sup>(3)</sup>	括蕪大者一枚(共皮子搗) 茯苓三兩 半夏三兩(洗) 黃連二兩 甘草一兩(炙)	右五味以水五升煮取二升溫服一升日再服.
65	桔梗甘草茯苓 澤瀉湯	桔梗三兩 甘草二兩 茯苓三兩 澤瀉二兩	右四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66	桔梗甘草枳實芍藥 加地黃牡丹湯	桔梗三兩 甘草二兩 枳實四枚 芍藥三兩 地黃三兩 牡丹皮二兩	右六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67	桔梗甘草枳實 芍藥湯	桔梗三兩 甘草二兩 枳實四枚 芍藥三兩	右四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70	當歸附子湯	當歸四兩 附子大者一枚(炮去皮破八片) 人參三兩 黃連三兩 黃柏三兩	右五味以水六升煮取三升溫服一升日三服.
71	當歸四逆加 吳茱萸生薑附子湯	當歸三兩 桂枝三兩(去皮) 芍藥三兩 細辛三兩 甘草二兩(炙) 木通二兩 <sup>13)(4)</sup> 大棗二十五枚(擘) 人參三兩 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	右九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72	當歸四逆加 人參附子湯	當歸三兩 桂枝三兩(去皮) 芍藥三兩 細辛三兩 甘草二兩(炙) 木通二兩 大棗二十五枚(擘) 人參三兩 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	右九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131	白蜜煎	人參一兩 地黃六兩 麻仁一升 白蜜八合	右四味以水一斗先煎三味取五升去滓納蜜再煎一二沸每服一升日三夜二.
133	柏葉阿膠湯	柏葉三兩 阿膠二兩 乾薑二兩(炮) 牡丹三兩	右四味以水三升先煮三味取二升去滓納膠烱消溫服一升日再服.
135	白朮茯苓半夏 枳實湯	白朮三兩 茯苓四兩 半夏一升 枳實一兩半	右四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分溫三服.
136	白朮茯苓厚朴湯	白朮三兩 茯苓四兩 厚朴二兩(炙去皮)	右三味以水五升煮取一升五合去滓分溫再服.
139	白朮石膏半夏 乾薑湯	白朮三兩 石膏半斤(棉裹) 半夏半升(洗) 乾薑二兩	右四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分溫三服. 渴者加入人參二兩黃連一兩.
140	白朮枳實 乾薑白蜜湯	白朮三兩 枳實一兩半 乾薑一兩 白蜜二兩	右四味以水六升先煮三味去滓取三升納白蜜烱消溫服一升日三服.
141	白朮枳實桃仁 乾薑湯	白朮二兩 枳實二兩 桃仁二十枚(去皮尖) 乾薑一兩	右四味以水五升煮取二升去滓分溫再服.
147	百合地黃加牡蠣湯	百合七枚 地黃汁一升 牡蠣二兩	右三味 先以水洗百合 漬一宿 當白沫出 去其水 另以泉水二升 煮二味 取一升 去滓 納地黃汁 煮取一升五合 分溫再服.

148	百合地黃牡丹皮 半夏茯苓湯	百合七枚(劈) 地黃汁一升 牡丹皮六兩 半夏一升 茯苓四兩	右五味 先以水洗百合 漬一宿 當白沫出 去其水 別以水二升 煮取一升 去滓 別以泉水四升 煮三味 取二升 去滓 納地黃汁 與百合汁 更上火 令沸 溫服一升 日三服。
150	百合貝母茯苓 桔梗湯	百合七枚(洗去沫) 貝母三兩 茯苓三兩 桔梗二兩	右四味以水七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153	白虎加桂枝人參 芍藥湯	知母六兩 石膏一斤碎(棉裹) 甘草二兩(炙) 粳米六合 桂枝一兩 人參三兩 芍藥二兩	右七味以水八升煮米熟湯成溫服一升日三服。
154	白虎加桂枝人參湯	知母六兩 石膏一斤 甘草二兩(炙) 粳米二合 桂枝三兩 人參三兩	右六味以水一斗煮米熟湯成去滓溫服一升日 三服。
157	白虎加人參黃連 阿膠湯	知母六兩 石膏一斤碎(棉裹) 甘草二兩(炙) 粳米六合 人參三兩 黃連三兩 阿膠二兩	右七味以水一斗先煮六味米熟湯成去滓納膠 烱消溫服一升日三服。
158	白虎加地黃湯	知母六兩 石膏一斤(碎) 甘草二兩(炙) 粳米六合 地黃六兩	右五味以水一斗煮米熟湯成去滓溫服一升日 三服。
164	茯苓白朮甘草湯	茯苓四兩 白朮三兩 甘草一兩(炙)	右三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166	茯苓白朮厚朴 石膏黃芩甘草湯	茯苓四兩 白朮三兩 厚朴四兩 石膏半斤 黃芩三兩 甘草二兩(炙)	右六味以水一斗煮取五升每服一升五合日三 服。
172	附子細辛黃連 黃芩湯	附子大者一枚(炮去皮 破八片) 細辛二兩 黃連四兩 黃芩二兩	右四味以水六升煮取三升溫服一升日三服。
194	小柴胡加茯苓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人參二兩 半夏半升(洗) 甘草三兩 生薑二兩(切) 大棗十二枚(劈) 茯苓四兩	右八味以水一斗二升煮取六升去滓再煎取三 升溫服一升日三服。
195	小柴胡加 黃連牡丹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人參三兩 括蕒根四兩 黃連三兩 牡丹皮四兩 甘草三兩(炙) 生薑三兩 大棗十二枚(劈)	右九味以水一斗二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 日三服。
272	地黃黃柏秦皮 茯苓澤瀉湯	地黃六兩 黃柏三兩 秦皮二兩 茯苓三兩 澤瀉一兩	右五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273	地黃黃柏黃連 半夏湯	地黃半斤 黃柏六兩 黃連三兩 半夏一升(洗)	右四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274	地黃黃柏茯苓 括蕒湯	地黃六兩 黃柏三兩 茯苓三兩 括蕒根四兩	右四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285	梔子連翹甘草 括蕒湯	梔子十四枚(劈) 連翹二兩 甘草二兩 括蕒根四兩	右四味以水七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286	梔子湯	梔子十六枚(劈) 黃芩三兩 半夏半斤 甘草二兩	右四味以水四升先煮梔子取二升半去滓納三 味煮取一升分溫再服。
295	黃芩牡丹皮括蕒 半夏枳實湯	黃芩三兩 牡丹皮二兩 括蕒實大者一枚(搗) 半夏半升(洗) 枳實二枚	右五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296	黃芩石膏杏仁 甘草湯	黃芩三兩 石膏半斤(碎) 杏仁十四枚(去皮尖) 甘草一兩(炙)	右四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299	黃耆桂枝茯苓 細辛湯	黃耆三兩 桂枝二兩 茯苓三兩 細辛一兩	右四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301	黃耆當歸湯	黃耆三兩 當歸半兩	右二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319	厚朴大黃湯	厚朴八兩 大黃四兩	右二味以水五升煮取二升去滓溫服一升不差再服.
82	大青龍加附子湯	麻黃六兩(去節) 桂枝二兩(去皮) 甘草二兩(炙) 杏仁四十枚(去皮尖) 生薑三兩(切) 大棗十枚(擘) 石膏如雞子大 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	右八味 以水九升 先煮麻黃減二升 去上沫 納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取微似汗 汗出多者溫粉粉之 一服汗者 停後服; 若復服汗多亡陽 遂虛 郡風煩躁不得眠也.
89	大黃石膏茯苓 白朮枳實甘草湯	大黃四兩 石膏一斤 茯苓三兩 白朮四兩 枳實三兩 甘草三兩(炙)	右六味以水八升煮取五升溫分三服.
92	大黃香蒲湯 <sup>14)(5)</sup>	大黃四兩 香蒲一兩 黃連三兩 地黃半斤 牡丹皮六兩	右五味以水一斗煮取六升去滓溫服二升日三服.
93	大黃黃芩地黃 牡丹湯	石膏半斤(碎棉裹) 黃連三兩 黃芩四兩 甘草二兩	右四味以水一斗煮取三升溫服一升日三服.
95	大黃厚朴甘草湯	大黃四兩 厚朴六兩 甘草三兩	右三味以水五升煮取二升服一升得大便利勿再服.
96	大黃厚朴枳實 半夏甘草湯	大黃三兩 厚朴三兩 枳實三兩 半夏一升 甘草一兩(炙)	右五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99	麻仁白蜜煎	麻仁一升 白蜜六合	右二味 以水四升 先煮麻仁 取一升五合 去滓 納蜜 微沸 和合 令小冷 頓服之.
102	麻黃茯苓湯	麻黃二兩(去節) 茯苓三兩 白朮三兩 防己一兩 赤小豆一升	右五味以水七升先煮麻黃再沸去上沫納諸藥 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120	半夏茯苓湯	半夏一升 茯苓四兩 澤瀉二兩 乾薑一兩	右四味以水四升煮取三升去滓分溫再服小便利則愈.
175	鼻塞方	蒲灰 細辛 皂莢 麻黃	右四味等分爲末調和納鼻中小許嚏則愈.
178	四逆加吳茱萸 黃連湯	附子一枚(生用去皮破八片) 乾薑一兩半 甘草二兩(炙) 人參二兩 吳茱萸半升 黃連一兩	右六味以水六升煮取二升去滓溫服一升日再服.
180	四逆散	甘草二兩(炙) 附子大者一枚 乾薑一兩半 人參二兩	右四味搗篩白飲和服方寸匙 咳者去人參加五味子乾薑各五分并主下利, 悸者加桂枝五分, 小便不利者加茯苓五分, 泄利下重者先以水五升煮薤白三兩取三升去 滓以散三方寸匙納湯中煮取一升半分溫再服.
185	石膏黃連黃芩 甘草湯	石膏半斤(碎棉裹) 黃連三兩 黃芩四兩 甘草二兩	右四味以水一斗煮取三升溫服一升日三服.
193	小柴胡加茯苓 白朮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人參三兩 半夏半升(洗) 甘草三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茯苓三兩 白朮三兩	右九味 以水一斗二升 煮取六升 去滓 再煎取三升 溫服一升 日三服.
207	柴胡黃芩芍藥 半夏甘草湯	柴胡四兩 黃芩三兩 芍藥二兩 甘草二兩(炙) 半夏二兩	右五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分溫三服.
210	連翹阿膠半夏 赤小豆湯	連翹二兩 阿膠一兩半 半夏半升(洗) 赤小豆三兩	右四味以水四升先煮三物取二升去滓納膠烱 消溫服七合日三服.
227	理中加附子湯	人參三兩 白朮三兩 甘草三兩 乾薑三兩 附子一枚	右五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28	理中加人參括蕪根湯	人參四兩 白朮三兩 甘草三兩 乾薑三兩 括蕪根二兩	右五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29	理中加黃耆湯	人參三兩 白朮三兩 乾薑三兩 甘草三兩(炙) 黃耆三兩	右五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31	人參乾薑湯	人參二兩 附子一枚 乾薑三兩 枝二兩(去皮) 甘草二兩(炙)	右五味以水二升煮取一升去滓溫頓服之.
232	人參白朮芍藥甘草湯	人參三兩 白朮三兩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右四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33	人參附子湯	人參二兩 附子一枚 乾薑二枚(炮) 半夏半升 阿膠二兩 柏葉三兩	右六味以水六升煮取二升去滓納膠烱消溫服一升日再服.
234	人參石膏湯	人參三兩 石膏一斤碎(棉裹) 竹葉一把 黃連一兩 半夏半升(洗)	右五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35	人參地黃龍骨牡蠣茯苓湯	人參三兩 地黃半斤 龍骨三兩 牡蠣四兩 茯苓四兩	右五味以水一斗煮取三升分溫三服.
246	豬苓加人參湯	豬苓一兩 茯苓一兩 滑石一兩 澤瀉一兩 阿膠一兩 人參三兩	右六味以水四升先煮五味取二升納阿膠烱消溫服七合日三服.
247	豬苓加黃連牡丹湯	豬苓一兩 茯苓一兩 阿膠一兩 澤瀉一兩 滑石一兩 黃連一兩 牡丹一兩	右七味以水四升先煮六味取二升去滓納膠烱消分溫再服.
252	葶藶括蕪桔梗牡丹湯	葶藶三兩(熬) 括蕪實大者一枚(搗) 桔梗三兩 牡丹皮二兩	右四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56	竹茹半夏湯	竹茹二兩 括蕪根二兩 茯苓三兩 半夏半升	右四味以水五升煮取三升分溫三服.
258	竹葉石膏杏仁甘草湯	竹葉一把 石膏半斤 杏仁三十枚(去皮尖) 甘草二兩	右四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59	竹葉石膏黃芩澤瀉半夏甘草湯	竹葉兩把 石膏半斤(棉裹) 黃芩三兩 澤瀉二兩 半夏半升 甘草二兩	右六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62	枳實橘皮桔梗半夏生薑甘草湯	枳實四枚 橘皮二兩 桔梗三兩 半夏半升(洗) 生薑三兩(切) 甘草二兩(炙)	右六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63	枳實白朮茯苓甘草湯	枳實四枚 白朮三兩 茯苓三兩 甘草一兩(炙)	右四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分溫三服.
268	枳實厚朴白朮甘草湯	枳實四枚(炙) 厚朴二兩(炙去皮) 白朮三兩 甘草一兩(炙)	右四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270	地黃半夏牡蠣酸棗仁湯	地黃六兩 半夏半升 牡蠣二兩 酸棗仁三兩	右四味以水四升煮取二升分溫再服.
271	地黃知母黃連阿膠湯	地黃八兩 知母四兩 黃連三兩 阿膠一兩	右四味以水一斗先煮三味取三升去滓納膠烱消溫服一升日三服
307	黃連石膏半夏甘草湯	黃連一兩 石膏一斤碎(棉裹) 半夏半升(洗) 甘草三兩	右四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308	黃連阿膠半夏桃仁茯苓湯	黃連三兩 阿膠二兩 半夏半升(洗) 桃仁二十枚(去皮尖) 茯苓三兩	右五味以水五升先煮四味取二升去滓納膠烱消溫服一升日再服.
309	黃連阿膠半夏赤小豆湯	連翹二兩 阿膠一兩半 半夏半升(洗) 赤小豆三兩	右四味以水四升先煮三物取二升去滓納膠烱消溫服七合日三服.
312	黃連黃芩麥門冬桔梗甘草湯	黃連一兩半 黃芩三兩 麥門冬二兩 桔梗三兩 甘草二兩(炙)	右五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313	黃連黃芩半夏 豬胆汁湯	黃連二兩 黃芩三兩 半夏一升 豬胆大者一枚(取汁)	右四味以水六升先煮三味取三升去滓納胆汁 和合令相得分溫再服.
314	黃連黃芩瀉心湯	黃連三兩 黃芩二兩	右二味以水二升煮取一升分溫再服.
315	黃連黃芩阿膠 甘草湯	黃連一兩 黃芩一兩 阿膠一兩 甘草一兩	右四味以水一斗先煮三味取四升去滓納膠烱 消分溫三服.
316	黃連黃芩梔子 牡丹芍藥湯	黃連三兩 黃芩三兩 梔子十四枚(擘) 牡丹三兩 芍藥三兩	右五味以水六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 服.

『桂林古本』의 柴胡芍藥枳實甘草湯은 『傷寒論』의 四逆散(甘草 枳實 柴胡 芍藥)과 동일 처방구성이 동일하므로 처방명이 달라도 동일한 처방으로 보았다. 『桂林古本』의 四逆散(甘草二兩 附子大者一枚 乾薑一兩半 人參二兩)은 『傷寒論』 처방(甘草 枳實 柴胡 芍藥 各等分)과 처방명은 동일하나 전혀 처방구성과 용량이므로 『桂林古本』 단독처방으로 분류하였다. 禹餘糧丸이나 黃連粉은 『傷寒論』에 처방명만 기재되어 있고 처방구성 및 탕전법은 失傳되었으나, 『桂林古本』에는 그 처방구성 및 탕전법이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다. 비록 처방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조문과 처방명이 동일하므로 『傷寒論』 주재처방으로 분류하였다.

『桂林古本』과 金匱要略에 수재된 처방은 모두 121首이고, 『金匱要略』과 『傷寒論』 모두에 수재된 처방은 40首이다. 『金匱要略』에는 총 205首가 수재되어 있으며, 『桂林古本』에 수재된 『金匱要略』의 처방은 모두 161首이다.

기본적으로 처방명과 구성 및 용량이 모두 동일한 것, 처방명이 동일하고 구성 및 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처방명이 약간씩 다르나 처방구성 및 용량이 동일한 경우, 처방명과 구성 및 용량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동일처방으로 보아도 무방한 경우, 또는 처방명 구성 용량 모두 동일하나 복용법이나 탕전법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을 『桂林古本』과 『金匱要略』 주재된 처방으로 고려하였다. 括蕒瞿麥薯蕷丸, 大黃甘遂阿膠湯, 半夏厚朴茯苓生薑湯, 百合滑石代赭湯 등 처방명이 약간씩 다르나 처방구성 및 용량이 동일한 것은 동일 처방

으로 간주하였다. 桂枝芍藥知母湯, 鱉甲煎丸, 奔豚湯, 澤漆湯, 厚朴麻黃湯 등 처방명은 동일하나 처방구성 및 용량에 차이가 있는 처방역시 동일처방으로 간주하였다.

## 2. 『桂林古本』과 기존 처방과의 특성비교

### 1) 傷寒金匱에 처방명만 기재된 처방

『金匱要略』에 처방명은 있지만 약물이 기재되지 않는 처방은 膠薑湯, 苦參湯, 杏子湯, 黃連粉, 藜蘆甘草湯 모두 5首인데, 『桂林古本』에서는 藜蘆甘草湯을 제외한 4首의 처방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傷寒論』에는 禹餘糧丸에 약물구성이 없고, 白朮散에는 구성은 있으나 용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桂林古本』에는 失傳된 약물구성 및 용량이 기재되어 있다.

苦參湯은 『金匱要略』에서 처방구성 없이 처방명만 기재되어 있다. 『古今醫統大典』에 『桂林古本』과 동일한 용량과 탕전법이 수록되어 있다<sup>15)</sup>.

膠薑湯은 『金匱要略』에 처방명만 있고 약물, 탕전법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膠薑湯의 薑은 乾薑인지 生薑인지, 膠艾湯에 약물하나만 더 넣은 것인지 여러 의가들에 의해 추정되었다. 魏荔彤은 『金匱要略方論本義』에서 阿膠와 乾薑이라는 견해를 보였고, 林億은 膠艾湯으로 “아마도 앞 婦人妊娠病篇의 膠艾湯인 듯하다.”고 하였으며, 陳修園은 『金匱要略淺注』에서 阿膠와 生薑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陸淵雷은 『金匱要略今釋』에서 “나는 千金要方的 大膠艾湯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膠艾湯에 乾薑을 가한 것이다.”라는 견해를 보

였다<sup>16)</sup>.

『桂林古本』의 膠薑湯에는 膠艾湯에서 艾를 제거하고 대신 生薑三兩을 넣은 구성으로, 婦人下血에 사용한다는 조문의 증상에 사용하기 매우 적합하다.

文蛤散은 『傷寒論』에서 文蛤五兩 一味만을 갈아서 끓는 물 5함에 1方寸匙를 넣어 복용하는 처방이다. 『桂林古本』에서 文蛤散은 一味구성이 아니라, 麻杏甘石湯을 기본으로 하는 文蛤湯 처방과 동일한 약을 갈아서 끓는 물에 1方寸匙를 넣고 5함을 복용하라 하였다. 복용법은 『金匱要略』의 文蛤散과 동일하나, 구성으로 『傷寒論』의 文蛤散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처방이다. 실제 文蛤湯은 임상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sup>17)</sup>, 文蛤一味만으로 된 文蛤散을 사용하여 득효한 임상보고는 없었다. 이에 『桂林古本』의 文蛤散 처방구성이 임상적인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본다.

『傷寒論』의 禹餘糧丸과 『金匱要略』의 黃連粉은 처

방구성이 失傳되어 있다. 禹餘糧丸의 경우, 蔡正言의 『甦生的鏡』에 禹餘糧一兩 龍骨八錢 牡蠣五錢 鉛丹六錢 茯苓六錢 人參五錢 六味로 수록되어 있다<sup>18)</sup>. 黃連粉의 경우, 大塚敬節은 黃連單味일 것이라 추측하였다<sup>19)</sup>. 이 두 처방은 『桂林古本』에는 그 구성이 모두 수재되어 있다.

黃連粉은 黃連과 甘草 二味로 이루어지며, 『金匱要略』과 동일 조문 하단에 그 구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傷寒金匱處方에서 甘草와 만나 2가지 本草로 처방을 이루는 경우는 大黃甘草湯 麻黃甘草湯 芍藥甘草湯 桂枝甘草湯 등이 있다. 黃連粉도 이와 같은 동일 선상의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桂林古本』에서는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 板本에서 失傳된 여러 처방의 내용을 매우 합리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板本研究에 있어서 『桂林古本』의 가치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Table 2. 『桂林古本』에만 구성 및 용량이 기재된 처방

NO.	처 방	구 성	출 전	차이점
49	苦參湯	苦參一斤	金匱	처방구성없이 처방명만기재 『古今醫統大典』에 『桂林』과 동일용량과 탕전법이 수록됨.
58	膠薑湯	阿膠三兩 地黃六兩 川芎二兩 生薑三兩(切) 當歸三兩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金匱	처방명만 있고 약물, 탕전법 등은 기재되지 않음
114	文蛤散	文蛤五兩 麻黃三兩 甘草三兩 生薑三兩 石膏五兩 杏仁五十粒(去皮尖) 大棗十二枚(劈)	傷寒 金匱	전혀 다른 처방이다. 처방구성차이 : 『傷寒』文蛤 五兩 탕전법차이 : 上一味爲散以沸湯和一方寸匕服湯用五合 文蛤散은 『傷寒論』에서 文蛤一味로 구성되어있으며, 임상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는 처방이다. 대부분의 醫家들이 임상상 큰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다. 『桂林』文蛤散은 一味구성이아니라, 麻杏甘石湯을 기본으로 하는 文蛤湯과 동일한 구성이다.
220	禹余糧丸	禹余糧四兩 人參三兩 附子二枚 五味子三合 茯苓三兩 乾薑三兩	傷寒	처방구성없음 : 처방명만 있고 구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06	黃連粉	黃連十分 甘草十分	金匱	처방구성없음 : 『金匱』에 처방명만 기재.

## 2) 처방명다름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의 命名法이 後世의 것과 가장 대별되는 특징은 그 처방을 구성하는 본초들을 여러 개 나열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桂林古本』의 처방명 역시 君藥이 되는 본초이름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구성하는 본초의 이름을 나열하는 『傷寒論』의 命名法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수 십 개의 처방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명보다 더 철저하게 그 命名法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처방을 보자면 葛根黃連黃芩湯은 葛根黃連黃芩甘草湯으로, 四逆散을 柴胡芍藥枳實甘草湯으로, 烏頭湯을 烏頭麻黃黃耆芍藥甘草湯으로, 大黃甘遂湯을 大黃甘遂阿膠湯으로, 大黃附子湯을 大黃附子細辛湯으로, 百合雞子湯을 百合雞子黃湯으로, 滑石代赭湯을 百合滑石代赭湯으로, 茯苓戎鹽湯은 茯苓白朮戎鹽湯으로, 枳實薤白桂枝湯은 枳實薤白桂枝厚朴括蕪湯으로, 梔子厚朴枳實湯으로, 滑石白魚散은 滑石亂髮白魚散으로 처방을 구성하는 모든 본초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처방명이 구성된다. 그 중에서 되어 있는데 百合雞子湯과 滑石代赭湯은 『千金方』과 『金匱要略』에, 百合雞子黃湯과 百合滑石代赭湯은 『外臺秘要』과 『桂林古本』에 그 처방명이 수록되어 있다.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은 桂枝甘草麻黃生薑大棗細辛附子湯으로, 瀉心湯은 大黃黃連黃芩瀉心湯으로 표기되는 등, 기존 처방명과 달리 구성하는 모든 본초명을 나열하는 식으로 변형된 처방명으로 되어 있다. 半夏厚朴湯을 半夏厚朴茯苓生薑湯처럼 처방에 나오는 모든 본초를 나열하지는 않지만 더 자세히 나열하려고 하기도 한다. 橘枳薑湯에서 橘枳實生薑湯, 枳朮湯에서 枳實白朮湯과 같이 축약된 기존 처방명에서 본초명을 그대로 나열하는 식의 처방명도 있다.

그 외 기존 처방명보다 본초구성이 적게 구성된 처방은 黃芍藥桂枝湯, 苦酒湯, 膠艾湯, 桂枝龍骨牡蠣湯 4처방이다. 傷寒金匱에 수재된 처방이

나 그 명칭이 다르게 기재된 처방은 모두 22개이다.

## 3) 처방구성다름

처방구성이 다른 처방은 桂枝去芍藥加牡蠣龍骨救逆湯, 桂枝芍藥知母甘草湯, 大柴胡湯, 麻黃升麻湯, 鱉甲煎丸, 奔豚湯, 射干麻黃湯, 四逆散, 四逆湯, 溫經湯, 竹葉湯, 澤漆湯, 通脈四逆加豬胆汁湯, 通脈四逆湯, 厚朴麻黃湯 등 총 15개이다[Table 3].

傷寒金匱처방에 비하여 後世의 혼입으로 의심되었던 몇몇 복잡한 처방들이 간결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들 처방의 특징이다. 특히 神農本草經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唐代 『新修本草』<sup>20)</sup>에 기입되어 있어 後世에 添入된 약물로 보이는 紫葳, 蜂窩, 蛻螂, 甘李根白皮, 紫苑, 白前 등이 『桂林古本』의 처방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澤漆湯은 半夏半升 紫參五兩 澤漆三升 生薑五兩 人參三兩 甘草三兩의 六味로 구성되어 있다. 『金匱要略』의 처방과 조문과 처방명이 동일하나, 白前 黃芩 桂枝 3종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鱉甲煎丸은 『金匱要略』의 복잡한 23味の 처방에 비하여, 傷寒金匱빈용약물이면서 치료효과가 뚜렷한 鱉甲 柴胡 黃芩 大黃 牡丹 蠅蟲 阿膠 7味 本草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처방구성으로 임상활용도가 떨어졌던 麻黃升麻湯, 鱉甲煎丸, 射干麻黃湯, 竹葉湯, 澤漆湯, 厚朴麻黃湯 등의 여러 처방들이 傷寒金匱에서 빈용되는 본초로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다.

桂枝芍藥知母甘草湯은 그야말로 처방명이 처방을 구성하는 桂枝 芍藥 知母 甘草의 本草 4味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奔豚湯에서 傷寒金匱처방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효능도 뚜렷하지 않은 甘李根白皮가 上衝에 사용되는 桂枝로 되어 처방의 목표에 더 부합되고 있다.

大柴胡湯은 『傷寒論』에서 大黃이 없지만, 『金匱要略』과 『桂林古本』에는 大黃 2兩이 들어있다. 『普濟本事方』과 『陰證略例·伊尹湯液論例』에 의하면 『伊

尹湯液』에도 大黃이 들어있다<sup>(6)</sup>고 하니, 『傷寒論』  값다고 볼 수 있다.  
 보다 『桂林古本』의 大柴胡湯 처방이 원형에 더 가

Table 3. 『桂林古本』에서 구성이 다른 처방과 그 차이점

NO	처 방	桂林古本 구성	傷寒金匱 구성	처방구성차이
30	桂枝去芍藥加牡蠣龍骨救逆湯	桂枝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牡蠣五兩(熬) 龍骨四兩	桂枝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蜀漆三兩 牡蠣五兩(熬) 龍骨四兩	[金匱] 蜀漆三兩 포함
47	桂枝芍藥知母甘草湯	桂枝三兩 芍藥三兩 知母二兩 甘草二兩	桂枝四兩 芍藥三兩 甘草二兩 麻黃二兩 生薑五兩 白朮五兩 知母四兩 防風四兩 附子二枚	[金匱] 9味로구성, 마황 백출 방풍 부자 4味 포함 [桂林]의 구성이 약리가 간소하여 傷寒金匱처방의 특성과 더 가깝다.
80	大柴胡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芍藥三兩 半夏半升(洗) 生薑五兩(切) 枳實四枚(炙) 大棗十二枚(擘) 大黃二兩	柴胡半斤 黃芩三兩 芍藥三兩 半夏半升(洗) 生薑五兩(切) 枳實四枚(炙) 大棗十二枚(擘)	처방구성차이 : [傷寒]에는 大黃이없다.
105	麻黃升麻湯	麻黃二兩半(去節) 升麻一兩 知母一兩 黃芩一兩半 桂枝二兩 白朮一兩 甘草一兩(炙)	麻黃二兩半去節 升麻一兩一分 當歸一兩一分 知母十八銖 黃芩十八銖 萎蕤一作 菖蒲十八銖 芍藥六銖 天門冬六銖去心 桂枝六銖去皮 茯苓六銖 甘草六銖炙 石膏六銖碎綿裹 白朮六銖 乾薑六銖	당귀 위유 창포 작약 천문동 복령 석고 건강 8味が없다. *柯琴은 後世粗工의 伎이고 仲景의 방이 아니라고 단언 하였다. 처방구성이나 용량 표기의 간소함으로 보아『桂林古本』의 것이 仲景方의 성격을 짙게 띄고 있다.
160	鱉甲煎丸	鱉甲 柴胡 黃芩 大黃 牡丹 蟪虫 阿膠	鱉甲十二分(炙) 烏扇三分(燒) 黃芩三分 柴胡六分 鼠婦三分(熬) 乾薑三分 大黃三分 芍藥五分 桂枝三分 葶藶一分(熬) 石葦三分(去毛) 厚朴三分 牡丹五分(去心) 瞿麥二分 紫葳三分 半夏一分 人蔘一分 蟪虫五分(熬) 阿膠三分(炙) 蜂窩四分(炙) 赤硝十二分 蜣螂六分(熬) 桃仁二分	桂林7味, 金匱24味(竈下灰 포함) [桂林]의 구성이 약리가 간소하여 傷寒金匱처방의 특성과 더 가깝다. [千金方]에서는 鱉甲十二片을 사용했고, 또한 海藻三分 大戟一分 蟪虫五分이 있고, 鼠婦 赤硝 두 약물이 없는데, 鱉甲煎으로 여러 약물들을 환으로 빚는다고 하였다.

(6) 『普濟本事方』在大柴胡湯方的最後一味藥大黃後即以小字說明：“伊尹『湯液論』大柴胡同薑棗共八味, 今監本無, 脫之也.”  
 『陰證略例 伊尹湯液論例』也進一步指出：“朱奉議雲仲景瀉心湯比古湯液則少黃芩, 後人脫落之. 許學士亦雲伊尹『湯液論』大柴胡湯八味, 今監本無大黃, 只是七味, 亦爲脫落之也. 以是知仲景方皆『湯液』也.”

174	奔豚湯	甘草二兩(炙) 芎藭二兩 當歸二兩 黃芩二兩 芍藥二兩 半夏四兩 生薑四兩 葛根五兩 桂枝三兩	甘草二兩(炙) 芎藭二兩 當歸二兩 黃芩二兩 芍藥二兩 半夏四兩 生薑四兩 葛根五兩 甘李根白皮一升	[金匱] 甘李根白皮一升 대신 桂枝三兩 로 구성.
176	射干麻黃湯	射干三兩 麻黃三兩 半夏半升 五味子半升 生薑四兩 細辛三兩 大棗七枚	射干三兩 麻黃三兩 半夏半升 五味子半升 生薑四兩 細辛三兩 大棗七枚 麻黃四兩 紫苑三兩 款冬花三兩	紫苑三兩 款冬花三兩 두 가 지 약물 없음. [桂林]에는 자완 관동화 등 傷寒金匱에 빈용되지 않는 약 재가 빠져있다.
180	四逆散	甘草二兩(炙) 附子大者一枚 乾薑一兩半 人參二兩	甘草炙 枳實破水漬炙乾 柴胡 芍藥 各等分	傷寒論 四逆散과 별개의 처 방으로, 四逆湯에 人參이 더 해져 있다.
181	四逆湯	甘草二兩(炙) 附子大者一枚 (生用去皮破八片) 乾薑二兩半 人參二兩	甘草二兩(炙) 附子大者一枚 (生用去皮破八片) 乾薑一兩半	[桂林]에만 人參이 있음
217	溫經湯	吳茱萸三兩 當歸二兩 川芎二兩 芍藥二兩 人參二兩 桂枝二兩 阿膠二兩 牡丹皮二兩 甘草二兩 生薑二兩	吳茱萸二兩 當歸二兩 川芎二兩 芍藥二兩 人參二兩 桂枝二兩 阿膠二兩 牡丹皮二兩 甘草二兩 生薑二兩 半夏半升 麥門冬一升(去心)	반하, 맥문동 2味が 없다.
260	竹葉湯	竹葉一把 葛根三兩 桔梗一兩 人參一兩 甘草一兩 生薑五兩 大棗十五枚(擘)	竹葉一把 葛根三兩 防風桔梗桂枝人參甘草各一兩 附子一枚(炮) 大棗十五枚 生薑五兩	방풍 계지 부자 미포함.
289	澤漆湯	半夏半升 紫參五兩 澤漆三升 生薑五兩 人參三兩 甘草三兩(炙)	半夏半升 紫參五兩(一作紫苑) 生薑五兩 澤漆三斤 (以東流水五斗煮取一斗五升) 白前五兩 甘草黃芩人參桂枝各三兩	백전 황금 계지 없음.
290	通脈四逆加 豬胆汁湯	甘草二兩(炙) 乾薑三兩 附子大者一枚(生用) 豬胆汁半合人參二兩	甘草二兩(炙) 乾薑三兩 附子大者一枚(生用) 豬胆汁半合	[傷寒] 人參二兩이 없는 4味.
291	通脈四逆湯	甘草二兩(炙) 附子大者一枚 (生用破) 乾薑三兩 人參二兩	甘草二兩(炙) 附子大者一枚 (生用破) 乾薑三兩	[傷寒] 人參二兩이 없는 3味.
320	厚朴麻黃湯	厚朴五兩 麻黃四兩 石膏如雞子大 杏仁半升 半夏半升 五味子半升	厚朴五兩 麻黃四兩 石膏如雞子大 杏仁半升 半夏半升 乾薑二兩 細辛二兩 五味子半升 小麥一升	건강 세신 소맥 없음

## 4) 처방용량다름

처방용량, 또는 표기법이 차이나는 처방은 총 46首로, 傷寒金匱와의 차이점 및 조문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4].

白朮附子湯은 桂林에서는 白朮一兩 附子一枚(炮) 甘草二兩(炙) 生薑一兩半 大棗六枚(擘)으로, 金匱에서는 白朮二兩 甘草一兩(炙) 附子一枚半(炮去皮) 上三味剉 每五錢匕 薑五片棗一枚 水盪半煎

七成去滓溫服로 기재되어 있다. 防己黃耆湯 역시 金匱 탕전법에 薑四片棗一枚로 기재되어 있다. 『金匱要略語釋』에서 '이 처방은 분명 後代 사람이 고친 것이다.'라고 하였고<sup>(7)</sup>, 『金匱集解』 역시 本方に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生薑과 大棗를 처방구성에 넣지 않고 탕전법 뒤로 넣은 것은 薑三棗二와 같은 宋代부터 행해지던 後世處方の 기재 방식으로, 일반적인 傷寒金匱의 표기법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大塚敬節은 生薑과 大棗를 後에 넣는 것은 唐以後에 사용된 방법이라 하였다<sup>(21)</sup>.

白朮散은 金匱에는 처방약물의 구성은 있으나 용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桂林古本』에서 白朮 川芎 蜀椒(去目汗) 牡蠣 各等分으로 되어 있다. 外臺秘要와 화제국방에서는 白朮 川芎 各四兩 蜀椒三分 牡蠣二分으로 되어 있다.

麻黃杏仁薏苡甘草湯은 麻黃一兩 杏仁二十枚 薏苡一兩 甘草一兩으로, 『金匱要略』의 麻黃 杏仁 薏苡仁의 양보다 2배 더 많다.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麻杏薏甘湯은 麻黃과 薏苡仁의 용량을 늘려 사용<sup>(22)(8)</sup>하고 있으므로 『桂林古本』의 처방용량이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大黃蠟蟲丸의 大黃용량이 『金匱要略』에서 十分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誤記로 보인다. 『桂林古本』

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약재와 동일한 兩의 단위가 적용되어 大黃十兩으로 표기되어 있다. 『桂林古本』의 膠艾湯은 地黃六兩으로, 『金匱要略』보다 二兩 더 많이 들어있어 補血의 의미가 더 강하다.

鰲甲煎丸의 경우, 『金匱要略』에서는 鰲甲十二分 烏扇三分 黃芩三分 柴胡六分 鼠婦三分 乾薑三分 大黃三分 芍藥五分 桂枝三分 葶藶一分 石葦三分 厚朴三分 牡丹五分 瞿麥二分 紫葳三分 半夏一分 人參一分 蠹蟲五分 阿膠三分 蜂窩四分 赤硝十二分 蜣螂六分 桃仁二分 23味の 本草가 1分에서 12分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표기되었으나, 『桂林古本』에서는 7味の 鰲甲 柴胡 黃芩 大黃 牡丹 蠹蟲 阿膠가 各等分으로 되어 있다.

麻黃升麻湯의 경우, 『傷寒論』(麻黃二兩半 升麻一兩一分 當歸一兩一分 知母十八銖 黃芩十八銖 萎蕤一作 菖蒲十八銖 芍藥六銖 天門冬六銖 桂枝六銖 茯苓六銖 甘草六銖 石膏六銖 白朮六銖)로 처방용량의 단위가 兩分銖作 등 여러 표기로 혼입되어 있으나, 『桂林古本』(麻黃二兩半 升麻一兩 知母一兩 黃芩一兩半 桂枝二兩 白朮一兩 甘草一兩)으로 용량단위가 兩으로 통일되고, 용량 또한 一兩 또는 一兩과 같이 一兩一分 등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Table 4. 『桂林古本』에서 처방용량이 다른 처방과 그 차이점

NO	처 방	구 성	출 전	차이점 (桂林古本기준)
2	葛根加半夏湯	葛根四兩 麻黃三兩(去節) 桂枝三兩(去皮) 芍藥二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半夏半升(洗)	傷寒	처방용량차이 : 『傷寒』生薑二兩
23	桂枝加黃耆湯	桂枝三兩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五枚 黃耆二兩	金匱	처방용량차이 : 大棗十二枚 복용법차이 : 須臾飲熱稀粥一升余, 以助藥力, 溫服取微汗, 若不汗, 更服.

(7) 這個方子.....顯系後人所改  
 (8) 麻杏薏甘湯 : 麻黃12 杏仁6 薏苡仁24 甘草6

41	桂枝附子湯	桂枝四兩(去皮) 附子二枚(炮) 甘草二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傷寒 金匱	처방용량차이 : 附子三枚 탕전법차이 : 煮取二升 [상한, 금궤] 모두 동일
52	栝藹桂枝湯	栝藹根三兩 桂枝三兩(去皮) 甘草二兩(炙) 芍藥三兩 生薑二兩(切) 大棗十二枚(擘)	金匱	처방용량차이 : 栝藹根二兩 生薑三兩 으르기제 복용법차이 : 『金匱』 上六味以水九升 煮取三升 分溫三服 微取汗 汗不出 食頃 啜熱粥 發之
53	栝藹瞿麥薯蕷丸	栝藹根二兩 瞿麥一兩 薯蕷二兩 附子一枚(炮) 茯苓三兩	金匱	처방명차이 : 栝藹瞿麥薯蕷丸 처방용량차이 : 薯蕷三兩
59	膠艾湯	地黃六兩 川芎二兩 阿膠二兩 艾葉三兩 當歸三兩 芍藥四兩 甘草二兩	金匱	처방명다름 : 芎歸膠艾湯 처방용량차이 : [金匱要略方論] 乾地黃四兩 탕전법/복용법차이 : 煮六味  없고, [日三服] 뒤 不差 更作4字 더 있다.
60	九痛丸	附子三兩 狼毒四兩 巴豆一兩 (去皮心熬研如脂) 人參一兩 乾薑一兩 吳茱萸一兩	金匱	처방용량차이 : 生狼牙一兩(炙香)
90	大黃蠱虫丸	大黃十兩 黃芩二兩 甘草三兩 桃仁一升 杏仁一升 芍藥四兩 地黃十兩 乾漆一兩 虵虫一升 水蛭百枚 蟻螬一升 蠱虫半升	金匱	처방용량차이 : 『金匱』의 大黃十分은 十兩의 誤 記로 보인다.
105	麻黃升麻湯	麻黃二兩半(去節) 升麻一兩 知母一兩 黃芩一兩半 桂枝二兩 白朮一兩 甘草一兩(炙)	傷寒	처방구성, 용량차이 : 당귀위유창포작약맥문동 복령석고건강8味が 없다. 마황을 제외한 나머 지 구성의 용량이 다르다. 麻黃二兩半去節升麻一兩一分 當歸一兩一分 知母 十八銖 黃芩十八銖 萎蕤一作菖蒲十八銖 芍藥六銖 天門冬六銖 去心 桂枝六銖 去皮 茯苓六銖 甘草六銖 炙石膏六銖 碎綿裹白朮六銖 乾薑六銖.
107	麻黃湯	麻黃三兩(去節) 桂枝三兩(去皮) 甘草一兩(炙) 杏仁七十枚(去皮尖)	傷寒	계지용량차이 : 『傷寒』 桂枝二兩 복용법 : 『桂林』에 不須粥 飲余如桂枝法 將息 桂枝 湯 見後卷. 17字가 더 있다.
109	麻黃杏仁薏苡甘草湯	麻黃一兩 杏仁二十枚(去皮尖) 薏苡一兩 甘草一兩(炙)	金匱	용량, 탕전법차이 : 계림 마황행인의이인양이 2배 더 많다. 『桂林』 湯煎, 『金匱』 散劑, 麻黃(去節) 半兩(湯泡) 甘草一兩(炙) 薏苡仁 半兩 杏仁 十介(去皮尖炒) 上剉麻豆大 每服四錢匕 水盞半 煮八分 去滓 溫服 有微汗 避風 『金匱』
110	麥門冬湯	麥門冬七升半 夏一升 參二兩 甘草二兩(炙) 粳米三合 大棗十二枚	金匱	용량차이 : 『金匱』 人參三兩
126	防己黃耆湯	防己一兩 甘草五錢(炙) 白朮七錢半 黃耆一兩	金匱	처방용량차이 : 甘草半兩(炒) 黃耆一兩一分(去蘆) 탕전법차이 : 水盞半 煎八分 『桂林』 탕전 시간이 더 길다.
137	白朮附子湯	白朮一兩 附子一枚(炮) 甘草二兩(炙) 生薑一兩半 大棗六枚(擘)	金匱	처방명다름 : 출부자탕 용량차이, 표기차이 : 白朮二兩 甘草一兩(炙) 附子一枚半(炮去皮) 上三味, 剉, 每五錢匕, 薑五片, 棗一枚, 水盞半, 煎七成, 去滓, 溫服.



138	白朮散	白朮 川芎 蜀椒(去目汗) 牡蠣各等分	『金匱』분량표기 없이 처방구성만 있음. 복용법차이 : 『金匱』에 夜一服뒤 다음 조문이 더 있다. <이하내용생략>
-----	-----	------------------------	--

## 5) 조제법/탕전법/복용법 다름

처방에 대한 서술내용이 기존 傷寒과 金匱에 비해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탕전법 조제법 복용법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또한 탕전시간과 탕전물량, 그리고 복용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탕전법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처방도 있다. 桂枝麻黃各半湯은 『桂林』은 別煎, 『傷寒』은 약재를 함께 탕전하며, 麻黃杏仁薏苡甘草湯은 『桂林』은 湯煎, 『金匱』는 散劑이다. 柴胡芍藥枳實甘草湯은 『桂林』은 湯煎, 『傷寒』은 散劑로 白飲과 복용한다. 鱉甲煎丸의 경우 제조법과 복용법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桂林』은 蜜丸 淸酒下, 『金匱』鱉甲煎으로 製丸(上二十三味爲末 取煨竈下灰一斗 淸酒一斛五斗浸灰 候酒盡一半 着鱉甲于中煮令泛爛如膠漆 絞取汁 內諸藥 煎爲丸)하며, 淸酒下복용법은 없다.

또한 탕전시간과 탕전물량, 그리고 복용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乾薑人參半夏丸은 『金匱』每服十丸, 『桂林』每服五丸으로 복용량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탕전 물량이 달라지면서 탕전시간차도 생기는 탕전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桂枝甘草龍骨牡蠣湯 『桂林』以水五升 煮取三升, 『金匱』煮取二升半 溫服八合, 桂枝附子湯은 六升으로 달이나 『桂林』에서는 取三升, 『傷寒金匱』取二升, 括蕒桂枝湯은 달임물량이 7升과 9升으로 다르고, 半夏厚朴茯苓生薑湯은 『桂林』以水一斗 煮取四升 『金匱』以水七升으로 달여 더 짧게 달이게 된다. 防己黃耆湯 水一升半 煮取八合인 반면 『金匱』에선 水盞半 煎八分이고, 小半夏加茯苓湯 以水七升으로 달여 『桂林』에선 二升을, 『金匱』에선 一升五合을 취한다.

白頭翁加甘草阿膠湯 『桂林』以水五升 先煮五味

取三升, 『金匱』以水七升 煮取二升半 『桂林』의 조문에 따라 產後 매우 허약해진 부인을 위하여, 짧게 달여서 약성이 약하게 추출되게 하였다.

大黃黃連黃芩瀉心湯의 탕전법을 보면 『桂林』以麻沸湯二升漬之 須臾絞去滓 分溫再服, 『金匱』以水三升 煮取一升 頓服之으로, 『桂林』의 탕전법이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大黃은 오랫동안 탕전시 사하력이 급격하게 감소되므로, 끓는 물에 잠깐 後下시키는 『桂林』의 탕전법이 약성을 강하게 지니게 될 수 있다. 또한 大黃甘遂阿膠湯과 같이 阿膠를 탕전 후에 넣어 녹이도록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기도 한다. 기존조문에 단순히 짧게는 4字부터 길게 70餘字까지 더해진다. 조제법/탕전법/복용법 등의 내용이 다른 처방은 모두 69首이다.

## IV. 考 察

傷寒論板本 『桂林古本』의 발견은 『傷寒論』 연구자들에게 그 진위에 대한 많은 논란을 던져 주었다. 『桂林古本』은 가장 최근에 발견된 판본이며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필사본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서지학적으로 연원이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桂林古本』은 傷寒論序文에서 언급한 16卷의 구성일 뿐만 아니라, 기존 傷寒論板本에서 王叔和 및 後代의 添入이라고 지적되어 온 여러 조문이 삭제되어 있으며, 전후의 문맥상 오류로 보이거나 일부가 누실된 것으로 보이는 조문이 전후의 문맥에 맞고 본의에 합치하도록 잘 정리되어 있다. 『桂林古本』은 그 진위의 여부를 떠나 향후의 『傷寒論』 연구와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의 임상응용에 있어 매우 의미미한 의학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醫書에서 『傷寒論』~『金匱要略』의 처방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sup>23-27(9)(10)(11)(12)(13)</sup>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傷寒論』은 禹餘量丸을 포함시키고 중복된 처방은 제외하여 114首, 『金匱要略』은 後代에 添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雜病方 3권의 처방은 제외하여 205首가 되며, 『桂林古本』은 323首의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傷寒論』의 114首 중 110首가 『桂林古本』에 포함되고, 『金匱要略』은 161首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각각의 중복된 처방을 제외하면 桂林 傷寒 金匱에는 모두 363首의 처방이 수록된 것이다.

伊尹은 360개의 本草로 이루어진 『神農本草經』에서 本草를 뽑아 360首의 처방으로 이루어진 『伊尹湯液』을 지었고, 張仲景은 『伊尹湯液』을 論擴하여 傷寒論을 지었다<sup>(14)</sup>.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傷寒雜病論』의 桂枝湯, 麻黃湯, 白虎湯, 小青龍湯, 小柴胡湯 등의 방제가 湯液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것임을 볼 때, 『傷寒雜病論』을 모두 張仲景이 독창한 것이 아니고 『伊尹湯液』을 기반으로 한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sup>(28)</sup>. 神農의 『本草經』에는 360개의 本草가 기재되어있고, 伊尹의 『湯液』에는 역시 360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건데 『伊尹湯液』을 論擴하여 지어진 『傷寒論』~역시 360首에 가까운 처방을 수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桂林古本』~『傷寒論板本』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록된 처방들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들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원리에 의하여 立方된 것인지 확인하고 실질적인 臨床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각 판본비교를 실시하

였고 또한 각 처방들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하였다. 첫째 『桂林古本』의 처방이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과 동일한 명명법으로 이름이 이어진 것인지, 둘째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과 동일한 입방원리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 처방인지, 그리고 셋째 臨床에서 더 효과적인 용량, 탕전법, 조제법 및 복용법인지를 비교하였다.

명명법에 있어서는 구성하는 본초명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식으로 이름지었으며, 처방에 본초가 추가될 때는 加 본초명, 삭제될 때는 去 본초명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는데, 오히려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명명법보다 더 정확하게 본초명을 나열한 처방들도 많다.

『桂林古本』은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의서에 없는 『桂林古本』만의 단독처방 92首를 더 포함하고 있다. 이 단독처방들 역시 기존의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판본에는 없는 溫病篇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기재된 처방일지라도 仲景方으로 보기에 구성약재의 가짓수가 많거나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았고 後世에 이르러 빈용된 약물로 구성된 처방들의 경우, 『桂林古本』에서는 구성약재의 가짓수가 간소해지고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에서 쓰이지 않는 약물이 배제되어 비로소 仲景方の 類風을 지닌 처방으로 정리되어 기재된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 의서에서 보이는 ‘本云…’이라는 衍文도 『桂林古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後世의 添入으로 보여져 논란이 되고 있는 鰲甲煎丸이나 麻黃升麻湯 등 여러 처방에서 처방구

(9) 상한론을 113首로 정하였다. 여기서는 禹餘量丸을 포함한 처방수이다.

(10) 상한론을 112首로 정하였다.

(11) 상한론에서 겹쳐지는 처방을 정리하여 108首로 정하였다.

(12) 『金匱要略』을 262首로 정하였다.

(13) 雜病方 3권의 처방은 제외하여 『金匱要略』을 205首로 정하였다.

(14) 『漢書·藝文志』中有『湯液經法』, 醫家都認爲此書爲伊尹所撰.

『甲乙經』晉代皇甫謐就認爲, “伊尹以亞聖之才, 撰用『神農本草』以爲湯液, ……仲景論廣伊尹湯液爲數十卷, 用之多驗.”

성과 용량에 대해서도 간결히 정리가 잘 되어있다. 또한 탕전법이나 제조법이 달라지는 처방도 있는데, 여러 내용 면에서 더욱 합당하다고 본다.

## V. 結 論

본 연구에서 『桂林古本』의 처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1. 『桂林古本』 傷寒論板本 處方

『桂林古本』은 단독처방 92수를 포함, 총 323수의 처방을 수재하고 있다.

『傷寒論』은 114수, 『金匱要略』은 205수의 처방을 수재하고 있는데, 중복된 처방을 제외하면 傷寒 金匱 桂林의 처방 수는 모두 363수가 된다.

### 2. 『桂林古本』 單독수재 처방

『桂林古本』 單독수재 처방은 92수로 28.5% 차지한다. 『桂林古本』 單독수재 처방들은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처방명 또한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의 명명법에 따라 지어졌다. 또한 傷寒 치료에 치우쳐진 『傷寒論』에서 다루지 않는 溫病篇을 통하여, 溫病을 치료하는 淸熱劑와 陰液을 보충해주는 補劑인 石膏, 黃連, 黃芩, 梔子, 大黃, 知母, 地黃, 人蔘, 百合, 牡丹皮, 阿膠 등의 약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의 원리로 형성된 『桂林古本』 單독처방들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이론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며, 임상에서의 치료영역 또한 한층 더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 3. 『桂林古本』, 『傷寒論』 그리고 『金匱要略』 處방의 차이점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처방명만이 남아있고 그 구성과 용량이 失傳된 처방들이 있다.

그중 苦參湯, 膠薑湯, 文蛤散, 禹餘糧丸, 黃連粉 등의 처방은 『桂林古本』에 처방구성과 용량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桂林古本』의 처방 중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과 동일처방이나 처방명이 달리 기재된 경우는 22수,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과 동일처방명이나 처방의 구성이 일부 다른 경우는 16수,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과 동일하나 구성약물의 용량 및 단위표기가 다른 경우는 46수,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과 동일하나 조제 탕전 복용법이 다른 경우는 69수가 있다.

이중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과 동일처방이나 처방명이 달리 기재된 경우에 있어 『桂林古本』의 처방명은 대개 구성약재와 그 용량 순에 따라 병렬 명명하는 仲景方 고유의 명명법에 보다 부합하여 명명되어 있다.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과 동일처방명이나 처방의 구성이 일부 다른 몇 가지 경우를 보자면 奔豚湯은 甘李根白皮가 삭제되고 奔豚이라는 방명에 걸맞게 桂枝가 기재되어 있으며, 射干麻黃湯에서는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에서 좀처럼 쓰이지 않는 紫苑 款冬花가 삭제되어 있고, 麻黃升麻湯과 鱉甲煎丸에서는 대량의 약물이 삭제되어 간소한 약물구성으로 仲景方의 類風에 걸맞게 재구성되어 있다.

### 4. 향후과제

『桂林古本』의 처방특성을 비교 연구해본 결과, 처방의 명명법과 구성면에서 『傷寒論』과 『金匱要略』 처방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傷寒과 雜病 치료영역을 넘어선 溫病에 대한 새로운 처방들을 포함하고 있고, 기존 판본에서 失傳된 처방이 수록되어 있고,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 조문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많은 내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주는 등, 傷寒論 研究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桂林古本』은 19세기라는 최근에 발견된 板本이며,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필사본으로, 서지학적인 측면에서는 眞本으로서의 근거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다만 板本の 내용상 합리성과 임상상 실용성의 측면에서 그 가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傷寒論』이나 『金匱要略』~당대 혹은 전후 시대의 古醫書들에 기재된 고대처방과 약물들과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湯液本草』, 敦煌本 『傷寒論』, 『外臺秘要』, 『千金方』 등의 여러 古醫書들과 『桂林古本』~처방들의 상세한 비교로 『桂林古本』의 진위판별 및 임상적 실용성에 대한 연구가 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李順保 編著. 傷寒論板本大典. 北京:學苑出版社. 2000:2.
- 염용하 외. 『金匱要略』의 板本成立에 대한 文獻的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2001;15(2):201.
- 大塚敬節. 金匱要略講話. 강원:의방출판사. 2003:26.
- 張順品. 由趙本『金匱要略』考證『桂林古本傷寒雜病論』之眞僞考. 整合中醫學3期. 2000:12-30.
- 張仲景. 『桂林古本』傷寒雜病論. 서울:의성당. 2004:12.
- 魏雪舫, 陳忠琳. 『桂林古本』傷寒雜病論 研究述評. 河南:國醫論壇. 1997:12.
- 張洪斌. 『桂林古本』傷寒雜病論評述. 河南:國醫論壇. 1986:3.
- 정종목. 『桂林古本』傷寒雜病論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 2007.
- 馬繼興. 中醫文獻學 : 傷寒雜病論의 기타 傳本과 輯本.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132-5.
- 金基郁. 唐宋時期 傷寒論 形成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01;14(2):118.
- 강한은. 『桂林古本』傷寒論板本の 처방구성에 대한 분석연구.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 2012.
- 서영배, 강한은. 『桂林古本』~傷寒論板本の 처방구성에 대한 분석연구.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 2012.
- 蔡德元. 古本傷寒雜病論校評. 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92:132.
- 蔡德元. 古本傷寒雜病論校評. 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92:125-6.
- 明代 徐春甫. 古今醫統大典.
- 郭東烈. 金匱要略釋解. 경기:成輔社. 2002:517.
- 大韓傷寒金匱醫學會(구.북치의학회) 임상치험례 (www.bokchi.com)
- 『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第11冊』中, 蔡正言『甦生的鏡』.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3.
- 大塚敬節. 金匱要略講話. 강원:의방출판사. 2003:370.
- 唐·蘇敬等, 尙志鈞 緝校. 新修本草. 安徽: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3:1-7.
- 大塚敬節. 金匱要略講話. 강원:의방출판사. 2003:70.
- 노의준, 강한은. 古方類聚. 서울:고방. 2010:306.
- 홍원식 외. 한중의학사개설. 대전:주민출판사. 2007:188.
- 두산대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김남재 외. 한방처방구성원리의 과학적 해석연구(2) : 傷寒論 처방의 통계적 분석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7;28:617-26.
- 곽동렬. 金匱要略譯解. 경기:成輔社. 2002:4.
- 전현식 외. 한방처방구성원리의 과학적 해석연구(4) 金匱要略 처방의 통계적 분석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8:19:221.
- 박종현 외. 敦煌本 傷寒論 중 『輔行訣藏府用藥法要』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회지. 2007;13(1):49.